

육용 오리 사양관리

홍승남 수의사편역

(본고는 체리벨리 가이드책을 번역한 것임)

육용 오리

다음의 결과는 좋은 환경과 경영방식 하에서 이루어진 것을 근거로한 것이다. 이는 생산목표의 지침이며 유전적으로 생산 가능한 오리에 수를 보여주지만 정확한 수나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생후 47일령

항 목	평 균	암 컷	수 컷
체 중	3.3kg	3.2kg	3.3kg
지육중량		2.35kg	2.4kg
사료효율	2.23 :1		
폐 사 율	5%		
가슴살 비 율	20%	(가슴살, 껍질과 창자를 제외한 지방)	

생후 70일령

항 목	평 균	암 컷	수 컷
체 중	3.9kg	3.78kg	4.01kg
지육중량	2.84kg		
사료효율	4.00 :1		
폐 사 율	6%		
가슴살 비 율	24%	(가슴살, 껍질과 창자를 제외한 지방)	

- 오리사육의 주의환경

질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 판매용오리 사육장은 적어도 다른 가금류와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되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리 사육장마다 같은 나이의 오리만 취급하는 것이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경영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다른 나이의 오리도 잘 사육할 수 있다.

다른단계에 있는 오리들 예를 들어혼자 자랄 수 있는 것과 어미의 손길이 필요한 가축은 각각 다른 오리사육장에서 사육되어야 한다. 아니면 생후 1일령부터 죽을 때까지 같은 오리 사육장에서 사육될 수도 있다.

- 오리사육장의 구비조건

오리사육장에는 오리가 편안하고 약탈자 불리한 기후조건 평균체 감염으로부터 보호되는 환경이어야 한다. 부드러운재료가 사용되고 모서리 등이 깨끗하게 처리된 우리는 축사 청소뿐 아니라 위생관리에도 두움이 된다.

- 좋은 축사 환경

공기순환이 잘 안되는 환경에서는 축사를 선선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특별한 환경과 경영방식이 필요하다.

☞ 물의 공급 및 사육장 바닥상태

오리는 물새인 관계로 물을 좋아한다. 그러나 물관리가 잘 안되면 오리는 항상 흠뻑젖어 있게 된다. 축사바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 먹는 곳을 금속이나 망사로 만든 곳에 설치하며 이는 급수조라 불린다. 급수조는 사용된 물이 오리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을 막고 잘 배수되도록 한다. 급수조의 높이는 오리의 성장에 따라 달라지며 깔짚, 바닥의 두께에도 영향을 미치며 보통은 0.3-0.4m면 충분하다. 이는 약간 발을 올려서 닿을 수 있는 높이여야 한다. 축사바닥에서 급수조의 위치를 정하는 데는 지역적 차이가 크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깔짚이 많고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급수조에 사용되는 깔짚의 교체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깔짚이 비싼 상황에서는 Mesh 지역을 넓혀서 깔짚을 모두 빼낸다.

☞ 오리사육 또는 경영자의 자세

양질의 다량생산을 위해서는 농장과 경영진의 세심하고 성실한 자세가 요구된다. 모든 관련 직원은 상세한 경영방식 하나하나에도 충실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한다. 경영 책임자는 각 오리 그룹들마다 책임자를 두어 가축들과 사육농장 상태를 정기점검하고

관리하게 해야 한다.

☞ 오리의 농장도착

농장에 도착한 오리중에는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온 오리도 있을 것이다. 그런 오리는 피곤하고 탈수 상태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서 다루어야 하며 가능한 빨리 육추실로 옮긴다. 오리가 식욕이 없어보이거나 물놀이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강제로 물에 부리를 넣어 물을 마시게 해야 한다.

☞ 오리잡기와 다루기

오리잡이 틀을 이용하면 오리를 쉽게 잡을 수 있다. 0.7m높이의 나무 판에 2.5m 길이의 철망을 3개 연결하여 이동가능하고 신축성 있는 오리잡이 틀로 오리를 타이트하게 감금할 수 있다. 생후1일령 오리를 단체로 다룰 때는 목을 잡거나 한 마리씩 다룰 때는 몸 전체를 잡는다. 자란 오리는 목이나 날개를 잡고 들어도 된다. 충분히 자란 오리는 날개를 잡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렇게 잡음으로서 몸 전체를 받쳐주기도 한다.

절대 오리의 다리를 잡거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지 말아야 한다. 오리는 다리를 쉽게 다치기 때문이다.

또 절대 오리의 한쪽 날개를 잡아서 들지 말아야 한다.

☞ 오리사육농장의 경영관리

오리사육업자의 수준과 사육농자의 관리를 위해 엄격한 경영시스템이 요구된다. 매주 시행되는 점검 절차를 통해 관리하여야 하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에는 다음번 점검전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위생, 소독, 방역

오리는 매우 내구력있는 종자이다. 하지만 생후5주까지는 감염이 잘된다. 생후5주까지 최대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방역에 대처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 오리사육장 청소

적어도 오리가 농장에 도착하기 일주일전에 오리가 머물 축사와 오리사육에 사용될 모든 장비들을 살균 청소하며 가능하면 소독해야 한다. 오리사육 농장에 청소관리에 관한 모든 자세한 사항을 사육일지를 작성하고 오리가 도착하기 전에 오리사육장 장비들은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오리가 물을 먹고 모이를 먹는 통은 부주의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해 깨끗이 비워지고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관계자외에는 출입을 금해야 한다. 축사를 방문하는 사람은 지난 48시간안에 다른 종류의 가축과의 접촉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깨끗하게 소독된 옷을 입어야 한다.

특히 어린오리들을 다루는 사람이나 방문객은 농장밖의 다른 오리나 가금류와의 접촉이 절대 없어야 한다.

특히 깔짚은 깨끗하고 마른 부드러운 깔짚이 바닥에 깔려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갈아 주어서 오리를 청결 건조하게 유지해야 한다.(필요하다면 매일 갈아 주어야 한다)

오리가 물놀이를 좋아한다해도 몸이 젖어 있는 것은 싫어하며 젖어 있게 되면 상태가 급속히 안 좋아 지며 심각한 박테리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환기는 오리주위의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환기가 잘 이뤄지면 먼지나 불쾌한 공기가 제거될 뿐만아니라 습도와 깔짚의 습기도 줄어든다. 정기적으로 환기상태를 조정하여 축사환경을 쾌청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암모니아는 10PPM 이하로 항상 유지되어야 하며 간단한 조작으로 가능한 가스분석기를 통해 암모니아 정도를 점검할 수 있다.

☞ 오리의 백신과 약품

오리에게 생길 수 있는 질병은 크게 3가지이고 백신으로 방지할 수 있다.

- DUCK VIRAL HEPATITIS(DVH)
: 간염
- DUCK VIRAL ENTERITIS(DVE)
: 장염
- PASTEURELLA MULTOCIDA
: 콜레라

이중 한가지라도 풍토병 경향이 있으면 유명한 백신제조회사나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축사내 질병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참조: 간염(DVH)은 생후 5주전의 오리에게 자주 발생하며 오리가 농장에 배달되기 전에 백신을 꼭 준비해 두어야 한다.

원종농장서 사육된 알에서 태어난 오

리는 DVH 감염의 위험이 없지만 원 농장에서 바로 옮겨진 오리들은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DVH가 자주 발생하는 농장에서는 도착되자마자 백신을 투입해야 한다.

적당한 백신이 투입된 부모에게서 태어난 판매용오리는 일반적으로 DVH 감염에 면역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하지만 면역성에 대해 지역 수의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량생산과 관계된 오리의 질병은 파스튜렐라 아나티페스티파(패혈증)과 이콜라이(대장균중)이다. 두 질병모두 약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바른 경영과 관리로 해결하는 것이 낫다. 특별한 문제가 있는 오리에게만 약을 투여하는 것이 좋으며 곤충이나 해충은 오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약을 투여할 필요는 없다. 오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 이동시에는 비타민, 미네랄, 전해질 등의 투여가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일반적인 관리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을 투여할 필요는 없다.

육용오리 일반관리

우리와 주위환경을 청결히 정리정돈된 상태로 유지한다. 기생충 따위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한다. 야생새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 양질의 깔짚과 모이를 사용한다. 발담그는 통, 샤워, 탈의실과 축사입구에

서의 안전의 제공뿐 아니라 살균되고 깨끗한 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시스템이 잘 관리되어야 한다. 안내와 경고판 등을 설치하여 출입자에게 질병감염의 위험이 있음을 알린다.

☞ 오리사육면적은?

오리 한 마리당 어느정도의 공간을 제공하느냐하는 것은 오리의 성장단계에 따라 다르며 이는 오리가 얼마만큼의 스트레스를 받느냐로 결정되고 스트레스는 오리의 무게 식이요법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 축사는 같은 크기의 축사로 만들어져야 하며 각 축사는 500-1,000 마리의 오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생후 7일까지 육추기간

오리가 농장에 도착하면 열에 가까이 두기 위해 생후7일까지는 육추 육성실에 놓는다. 각각의 샷갯용 육추기는 최소한 지름4m의 원형으로 만들며 높이가 0.5-0.7m로 신축성 있게하여 바닥의 통풍구멍이 없이 보호한다. 지름4m의 원통은 최고 5백수의 판매용 오리를 수용할 수 있다. 생후2일이 지난 오리들의 수용부터는 지름이 4m보다 넓은 원통을 이용하며 하루 더 지난 오리마다 조금씩 지름을 더 넓은 원통을 사용하게 신축성 있는 판을 사용한다. 7일째 되는 날 육추기를 제거하여 오리가 전체 우리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한다.

- 생후7일부터 18일까지(양육기간)

이 기간중에는 오리 한 마리당 최소

한 0.1m²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 축사 우리안에서 0.5-0.7m높이의 금속판으로 같은 크기의 작은 우리를 나누는 곳은 한우리당 500-1,00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각 나누어진 작은 우리의 담장의 안전성이 중요하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해야 한다.

- 생후18일부터 도살까지

생후 18일이후부터는 최소한 0.2m²의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기간중의 오리를 가두는 사육우리는 각각의 크기가 같은 작은 우리로 나누어져 있어야 하며 각각의 작은 우리는 5백-1천수의 오리를 수용할 수 있다. 우리와 우리밖의 사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생후 18일령이후의 오리라도 우리밖에 오리한 마리당 0.2m²의 공간이 제공된다면 우리안의 공간은 0.1m²정도도 괜찮다.

- 수용가능한 바닥공간

몇마리의 오리를 한 사육우리에 가둘 것인가하는 계산은 사육 우리의 전체를 오리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깔짚 도구 모이 등은 사육장바닥에 보관함으로써 계산이 어긋나게 해서는 안된다. 사육우리의 디자인과 도구 기계들의 위치선정은 모든 바닥 공간이 오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오리의 활동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오리들만을 위해서 할당된 공간계산이 틀리게 되고 적은 공간에 무리한 인원의

오리를 수용하는 결과를 낳게된다.

- 온도

다른가금종류와 같이 오리도 처음 며칠은 따뜻하게 보관되어야 한다. 열기의 정도와 수육기간은 농장이 위치해 있는 곳의 통풍상태에 따라 다르다.

선선한 곳에서는 5,000Kcal 정도의 가스나 전열기를 이용한다. 열대지역에서는 바닥에서 50cm 높이의 나무갓 안에 60와트짜리 백열등이 중앙에 설치되어 있다면 그 정도의 열기도 충분하다. 갓 태어난 오리들은 0.5-0.4m 높이에 지름 4m의 고체로 된 틀을 사용하면 통풍구멍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물 모이 열기에 항상 가까이 들 수 있다. 한열기구당 5백마리

가온을 목적으로 데워질 공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커튼등으로 필요한 공간만 분리시켜야 한다.

가온의 공간안에 전열기를 필요한 수만큼 설치한다. 우리안의 여러군데에 그리고 깔짚바로 위와 각각의 열기구 아래 온도계를 설치한다. 기후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오리가 농장에 도착하기 48시간전에 전열기를 가동시켜 가온 장소안의 온도가 말맞게 맞춰지도록 한다. 통풍이 좋지못한 환경이라면 다음과 같이 온도를 조정해야 한다.

추운지방에서는 가온시 실내온도를 맞춰주기 위해 별도의 난방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연소하는 열기구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오리뿐만아니라 직원에게도 해로운 일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

문에 최소의 환기가 이뤄져야 한다.

일산화탄소의 양을 확인하려면 작은 가스 감지기를 이용할 수 있다. 환기가 잘 안되는 곳에서는 열기구가 과해지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열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최소화하고 오리들이 열기에서 피해 있을 수 있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환기가 잘안되는 지역은 저녁에 기온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온도계의 온도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열대와 같은 곳에서는 생후 7일이 지난 오리에게 추가의 열지원은 필요하지 않으며 온대기후에서는 28일까지 추가 열지원이 필요하다. 육추실안에 오리들이 어떻게 몰려 있는가는 육추실내의 온도가 어떤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오리들도 몰려다니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 온도가 너무 높아도 몇몇 그룹으로 몰려다닐 수 있다. 보통은 육추기에서 떨어져서 바깥쪽에 몰려있다. 그러므로 육추기 바로 밑에 온도계를 설치하여 적정온도를 맞춘다. 환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지형에서는 목표보다 육추기의 온도를 낮게한다.

일단 오리들의 깃털이 어느정도 자라면(28일이상) 사육우리의 기온이 5℃ 이하가 아닌이상 열지원은 필요하지 않다. 1℃이하일 경우는 물이 얼 수도 있고 이는 오리가 먹는 먹이양이 줄고 성장발육율이 낮아질 수 있다. 오리는 물놀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마시는 물

외에 상당량의 물을 소비한다. 그러므로 물의 공급은 매우 중요하며 선선한 곳에서는 한 마리당 하루 1.5리터, 더운곳에서는 5리터를 준비해야 한다.

충분한 양의 물을 오리에게 공급하는 동시에 우리안의 바닥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 입추후 7일까지 음수관리

육추시는 자동급수기를 사용해야 하며 한 급수기당 100마리의 오리를 위한 물이 준비되어야 한다.(한마리당 9.5mm)

처음 3일동안은 작은 분수대를 이용 추가로 물을 공급해야 하며 한 분수대당 100마리의 오리를 수용해야 한다.

처음2일은 양육 첫 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분수대 물에 비타민,미네랄을 투여한다. 오리가 농장으로 이동되는데 오랜시간이 걸렸다면 이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 7일부터 28일까지 음수관리

육추기간이 끝나 육추기를 제거한 후에는 물통을 우리 한쪽 끝에 설치된 급수기쪽으로 이동시킨다. 급이기를 이동할 때는 한 번에 조금씩 이동하여 오리가 새 급수기위치에 적응해 가도록 한다. 이는 특히 급수기를 원래 급수기 위치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급수기로 옮길 때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리가 새 급수기위치에 적응하는데 며칠씩 걸리기도 한다.

18일부터 250마리의 오리당 2m길이의 철강으로된 급수기를 준비한다. 적

어도 하루에 한 번 급수기를 깨끗이 닦는다. 오리가 우리밖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물놀이 장소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물놀이 장에 항상 규칙적인 양의 물이 흐르는가를 확인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물놀이장의 물을 빼고 청소한다. 아니면 규칙적인 물의 흐름이 없는 물놀이 장이라면 매일 물놀이장의 물을 빼고 청소해야 한다.

- 급이관리

모든 먹이는 펠렛식이어야 한다. 생후 0-21일 = -3mm, 생후21일에서 도살까지 = -4m

생후14일 이기간중에는 100마리의 오리당 (한마리당 9.5mm의 먹는 공간)의 튜브를 사용한다.

14일 이후부터는 튜브에서 오리 180마리당 1.45m의 네모난 먹이통을 하나 사용한다. 모이통의 먹이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급이가가 오리가 성장하는 동안은 양질의 먹이를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오리가 도살되기 6시간 전까지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무리당 깨끗한 모이통을 사용한다. 남은 모이는 다른 오리무리에게 주고 다음에 농장으로 이동될 오리에게는 주지 않는다.

참조: 펠렛식의 모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으깨진 모이를 줘도 되지만 이는 모이를 많이 낭비하게 하고 오리한 마리당 사용되는 모이의 비율을 높게 한다.

조명을 오래 유지할수록 오리들이 잘 먹고 잘 자라는 확률이 높아진다. 매일 조명을 켜고 끄는데 타이머가 장착된 자동장치를 사용한다.

조명의 밝기는 보통 5에서 10 lux이며 이는 어떤 조명이 사용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일반 백열등을 사용하는 경우 1평방미터당 5와트의 조명이 공급된다.(일반적으로 이는 신문을 읽기에 충분한 밝기이다)

형광등도 오리우리의 조명으로 적당하지만 조명이 골고루 퍼지지 않기 때문에 백열등이 권장된다.

조명을 설치할 때는 사육우리 여러 군데에 고르게 배치하여 급이기 통이나 물에 고른 반사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

참조: 생후3주에서 5주사이의 오리에게 깃털을 쫄는 현상이 나타나면 조명의 밝기를 줄이는 것이 좋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매일 23시간 조명이 필요하다. 하루 한시간 정도 조명이 없는 어둠으로 오리들이 당황하지 않는가를 확인하고 조명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도 오리가 당황하지 않게 할 수 있다.

- 기록은 농장관리에 성공

모든 기록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기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각 무리의 결과에 대한 완전한 기록은 과거 무리들의 결과와 비교될 수 있다. 이 기록들은 투자와 생산에 관계된 문제의 해결이라는 면에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기록은 숫자와 그래프 형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이는 각 기록의 차이점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판매용 오리를 감시하기 위해하는 기록은 어린오리의 양육시기부터 발육까지 모두 기록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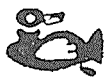
오리에게 닛블로 물을 먹입니다!

(cumberland system)

(초생추로부터 육용, 종자 오리까지 책임 보장합니다)

- ♥ 맑은 물 공급(세균 오염 방지)
- ♥ 사료 효율 증가(오리가 똑 고른 체형으로 증체)
- ♥ 폐수 배출 않됨(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 않됨)
- ♥ 깔짚 절약(왕겨 비용절약. 본 농장에서는 40%절약)

본 농장에 설치된 것을 확인 후 설치 바람. 고가의 유사품에 주의 바람!
미국회사 것임. 타회사 보다 15-20%가 적게듬.



미르네 오리 농장 *stolle seddin vital Agency*

(MIREUNE TRADING CO.LTD)

연락처 031-884-5272.017-345-5289.017-345-5245

담당 조남영 상무